

### 통화 의약건강산업 전 사슬 도약 이룬다

전국 최초의 중국 의약도시인 통화가 의약건강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정책지원, 혁신구동, 프로젝트 추진, 산업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바이오제약, 화학의약, 의료기기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하여 동북지역 의약산업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 도약에 중요한 획을 그어냈다.

통화시는 국가급 의약고신기술개발구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기업은 10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수정(修正), 만통(万通), 화하(华夏) 등 12개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연간 매출 억원대 이상의 품목 22개, 스타트업(斯达舒), 신개하(新开河), 무상(茂祥) 등 중국 유명 브랜드도 16개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통화시 의약건강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왔다. 국가급 의약기술센터 3곳, 성급 이상 기업기술센터 26곳의 혁신적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통화 의약고신구에 설립된 장백제(张伯礼)원사작업소(工作站)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심화, 이를 통해 중앙 대품종의 2차 개발, 화학의약 동등성 평가와 바이오의약 혁신 전환 등 분야에서 일련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통화안예특(安睿特)바이오제약이 자체 개발한 재조합 인간 알부민 주사제(重组人白蛋白注射液)가 해외시장에

출시되어 해당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 현재 이 회사는 안예특 2차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며 바이오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동보(东宝)제약은 중국 최초의 재조합 인간 인슐린(重组人胰岛素)탄생지로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인슐린 류사체의 제품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다. 금말(金马)제약의 1.1 류 신약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시판 절차를 신속히 추진중이며 이미 약 30개 품목이 복제약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여 약품의 품질과 효능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중앙 분야에서 동보, 무상 등 7개 기업이 14개의 고대 전통 처방 개발을 진행중으로 중앙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통화시는 의약산업의 '생산배정, 생산능력, 부품조달, 결산, 인재, 혁신' 6개 부분의 회귀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통화 소재 의약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신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의약건강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시는 의약건강산업과 기타 산업의 융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건강과 관광, 상업 무역, 료양, 향촌 진흥 등 분야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여 의학, 의약, 의료·료양의 상호 촉진, 군진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있다.



/통화발표

### 매하구시 공회 체험일 성황리에 개최

최근, 매하구시 공회 체험일의 시작과 함께 매하구시로동자문화궁도 새롭게 개관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종업원 사진전, VR 디지털 체험, 흥색영화 관람, 휴식 및 시음, 공의 체험 수업 등 다양한 행사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매하구시로동자문화궁은 부지면적 6,024 평방미터, 건축면적 5,637 평방미터로 총 5층, 18개의 기능실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화된 공회 거점, 전문적 예술 공간, 다기능 교육실이 하나로 통합되어 공회 회원들에게 서비스 제공의 본질과 시대적 매력을 전하고 있다.

매하구시로동자문화궁에 들어서면 심신 수양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서화, 음악, 수공예 편직, 말춤씨 발달, 요가·댄스, 스포츠 콘텐츠 제작 등 무료 공개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회원들의 직업 발전과 소양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직원 에너지 π공간'은 표준화된 서비스 거점으로 조성되어 현장 근로자와 새로운 형태 취업자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한다. AI 지능형 중의 사진의(四诊仪), 세포 열에너지 기기, 건강 자가측정 통합기기(健康自助体检一体机) 등이 무료로 개방되어 회원들에게 정밀한 건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직원 디지털 체험 공간'은 몰입형 상호작용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최신 VR기기를 통해 회원들이 첨단기술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통해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공회의 특화된 서비스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있다.

길림성사진작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길 우에서' 주제 사진전은 '장영축몽·일선풍화'(匠影筑梦·一线风华), '매하신장·경험방화'(梅河新章·镜撷芳华), '로경응흔·공운항촌'(老镜凝痕·工韵恒存) 등 세계의 전지구역으로 구성되었는데 140여폭의 작품이 로동자들의 투쟁 모습, 매하신구의 장엄하고도 새로운 면모 및 공업문화의 기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매하구시총공회 상무부주석 장천표는 "우리는 공회를 중심으로 사회각계의 역량을 연계하고 협력업체 및 우수단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꾸준히 노력하여 로동자문화궁을 사상 선도의 고지, 자질 향상의 거점, 문화생활의 터전, 권리 보호의 공간으로, 회원들이 오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자주 찾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준기자

## 집안 봄같이 준비 분주... 다각적 조치로 식량 안전 수호

요즘 집안시에서는 농사철을 놓치지 않고 봄철 농업생산의 중점 과제에 집중하여 기술 서비스, 물자 보장 및 홍보 지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봄같이 생산 방어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한해 동안의 풍작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태왕진(太王镇) 왕위의 집마당에서는 진농업기술보급소 일군이 트랙터의 배선 상태를 점검하며 왕위에게 농기계 조작 규범, 도로 주행 안전 등 류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진농업기술보급소 일군들은 마을을 돌며 관할구역내 농기계에 대해 전면적인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전조등, 브레이크에서 방호 장치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봄같이 생산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진농업기술보급소 일군인 장립신은 "최근 한동안 진의 모든 마을을 돌며 현장 투입 예정인 농기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현장에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은 교체하고 반사 스티커가 필요한 것은 모두 부착하여 모든 농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농기계 정비가 착실히 진행되는 가운데 농자재 구매도 분주히 띠고 있다. 진의 농자재 판매점에는 농자재를 사려는 농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장에 각종 비료가 충분히 비치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안정적인 공급을 보여주었다. 마당에서는 일군들이 물자가 제때에 배



송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러 판매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신용을 지키는 경영 원칙을 지켜 진내 봄같이 생산물자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함으로써 농가들이 안심하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자재 판매업자 왕덕안은 "저희는 모든 물건을 정규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받습니다. 령수증과 합격증이 모두 갖춰져있어 품질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농가재와 비료를 사러 오는 농가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모두들 봄같이 준비에 열의가 높습니다. 저희는 또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자재를 농가에게까지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농자재가 보장되자 과학적 재배 기술이 바로 뒤를 이었다. 과학적 농사와 안전한 봄같이 리념이 농가들에 침투될 수 있도록 태왕진사회치안중

관관리중심은 집안시과학기술협회와 함께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봄같이 준비 과정에서의 농가들의 실제 수요에 맞춰 상담 부스 설치, 전단지 배포, 일대일 현장 설명 등을 통해 농산물 품질 안전, 비료 및 농약의 과학적 사용, 친환경 재배 등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생산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주었다.

집안시과학기술협회 부주석 진락은 "올해 기후 특성과 토양 상황에 맞추어 과학적 시비, 병해충 친환경 방제 등 핵심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집중 교양과 농가 방문 지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들이 최신 재배 기술을 습득하게 해 봄같이 생산이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협회 일군들은 농가들에 우량종자 선정, 토양 검정에 따른 맞춤형 비료 사용, 토양 개량, 병해충 친환경 방제, 과수 재

배 관리, 비료 사용량 감소와 효율 증대, 재해 예방 및 감소 등 실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전수하고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을 농가들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로부터 과학적 재배 수준을 향상시켜 과학 기술이 봄같이 생산에 힘을 실어주도록 했다.

태왕진의 은옥하는 "예전에 우리 농민들은 시비를 모두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존했습니다. 오늘 기술일군들이 직접 와서 약제 비율을 알려주고 비료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었어. 농약 표지 확인법과 농약의 규범적인 사용법도 배웠어.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회를 전했다.

농기계 정비부터 농자재 구매, 과학기술 홍보와 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서비스 하나하나, 실질적인 조치 하나하나가 "들뜬 벼리"를 내리며 집안 대지에 봄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향후 집안시는 봄같이 생산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조치를 최적화하고 업무 추진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힘, 물자 보장, 안전 방어를 농업생산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탄탄한 행보로 식량 안보의 토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향촌 진흥의 장엄한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글 김명준기자

/ 사진 장경희(张敬晞), 한승(韩升), 왕사우(王思宇)



### 매하몽특육포, 25년 신념과 전승으로 전국에 판매망 구축



기업 대표 왕월명

옛적에 유목민의 천막 밖에서 바람에 말려지던 육포에서 매하구의 랜드마크 미식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매하몽특육포(梅河蒙特牛肉干)는 '장인정신'을 이어받아 순수 수제작을 고수하며 25년간의 발전을 통해 초기 소규모 작업장에서 직영 매장 4곳과 전국 각지에 판매망을 갖춘 민영기업으로 성장했다.

매하몽특육포 무장부점에 들어서면 육포를 자르고 양념하고 건조하고 계량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질서정

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저희 생산공정은 순수 수제작을 고수합니다. 풍건(风干) 육포는 건조도가 90% 안팎으로 입에 넣으면 진한 소고기 본연의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쫄깃함이 살아있지만 질기지 않고 퍽퍽함도 없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육포 기준 200근으로 약 600근의 생고기가 사용됩니다." 기업 대표 왕월명의 말이다.

왕월명은 내몽골 통로시 자루드기

로북진 합일포랭촌(扎鲁特旗鲁北镇哈日包村) 출신이다. 이곳은 호르沁(科尔沁) 초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소와 양떼가 많으며 전통 풍건 육포의 주요 산지중의 하나이다.

내몽골 음식문화에서 소고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맛이 좋아 초원 민족 식탁의 대표적인 식재료이다. 특히 풍건 육포는 민족적 특색이 짙은 전통 식품이다.

청년 시절, 왕월명은 체계적인 제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통로시의 한 육포가공장에 입사해 가장 기본적인 분할과 염제(腌制) 작업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외식업체에 근무하며 육포의 조미, 건조, 가공 세부 기술을 익혔다.

기술을 터득한 후 그는 안해와 함께 매하구시로 이주해 사업을 시작했다. 창업 초기에는 쉽지 않았다. 왕월명은 전통 몽골 의상을 입고는 삼문자전거를 타고 거리 곳곳에서 육포를 팔았다. 겨울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여름에는 타는 듯한 더위를 견뎌내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점차 일부 손님들이 이 '초원의 맛'을 기억하게 되었고 근면하고 소박한 청년의 모습 또한 사람들의 머리속에

서 잊혀지지 않게 되었다.

창업 25년, 왕월명은 줄곧 우수 품질의 소고기를 선택하고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에게 육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의 전승이다. 현재 매하몽특육포는 초기 길거리 판매에서 직영 매장 4곳, 연간 판매량 5만근, 제품이 전국 여러 지역에 판매되는 매하의 랜드마크 미식으로 성장했으며 다양한 시리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왕월명은 "저는 초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디를 가든 초원의 맛을 잊어서는 안되지요. 손님들이 드시는 모든 육포는 소의 정부위(精选部位)에서 선택한 고기로 이런 고기는 소 한 마리에서 오직 세팅이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매하몽특육포는 기업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왕월명은 "정교한 수공예 기술을 고수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열쇠입니다. 매하몽특육포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매하 랜드마크 미식이라는 황금 브랜드를 빛내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글 김명준기자

/ 사진 손지(孙池)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